

“올해 미래이음학교 34개교 시작...점차 확대”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신년 인터뷰



1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선별진료소 의료진을 응원하고 있다. 2 장휘국 교육감



2

❶ 2020년 광주교육을 되돌아본다면?

▲ 정부 계획보다 6개월 앞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등 보편적 복지도 견고히 다졌다. 기후위기대응과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관련 업무를 위해 '기후환경협력팀'을 신설해 지속 가능한 학교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사학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중등사립학교 위탁 채용'도 크게 확대했다. 2020학년도에는 16개 법인이 참여해 67명을 채용했는데, 2021학년도에는 25개 법인에서 123명의 교사를 위탁 채용했다.

❷ 2021년 역점을 두어 추진할 정책은?

▲ 2021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효과적인 대면·비대면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과 수업·평가를 더욱 내실화하겠다. 특히 '미래이음학교'(광주형 스마트스쿨)를 운영해 대면·비대면, 교과 연계 주제 중심 교육활동을 펼치겠다. 코로나19에 대비해 학교 안전망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교 방역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심리 및 정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형 친환경 미래학교도 구축한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스쿨'과 연계해 광주 미래교육을 위한 선도학교로 운영한다. 친환경 미래학교는 학생·교직원·학부모가 직접 참여해 공간을 혁신한다. 사물인터넷·증강현실 등 최신 교육 기술을 활용하는 미래형 교실을 구축하고, 디지털 교수 학습을 혁신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예술교육도 확대한다. '광주학생예술누리터'를 설립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결망을 구축, 문화예술 체험 상설 교육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❸ 미래이음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 "미래이음학교"는 광주형 스마트스쿨이다. '현재와 미래, 대면과 비대면, 교과와 교과, 학교와 마을을 잇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당 학교는 교육기술(edu-tech)을 활용해 시공간을 벗어나는 교육을 운영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주제 중심 학습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용 정보화 기기를 지원한다. 특히 학생이 기기를 직접 관리하고 학교와 가정에서도 대면·비대면 연계학습을 진행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벗어나는 교육활동을 운영한다. '미래이음학교'는 2021년에 34개 학교를 시작으로 성과분석 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❹ 광주시민과 교육 가족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한마음으로 고생해 희망을 찾아주신 교육 가족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새해에도 교육 가족 모두가 합심해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대면·비대면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서 학생의 배움을 지켜내기 위해 모두 하나가 됐다. 신축년 새해에는 소와 같은 뚝심으로 교육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가겠다. ▼

함께해요!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